

외국인 기록을 통해 본 서울의 자연경관

Foreign history seen through the natural scenery of Seoul

이 원 호*, 연 응*, 배 효 정*
국립문화재연구소*

Lee won-ho*, Yeon Ung*, Bae Hyo-Jeong*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요약

구한말 서울의 자연경관에 대한 외국인의 기록은 다른 자연환경과 문화를 지닌 관찰자의 시점으로 인식되었다는데 가치를 지니며 한국경관의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성장과 도시화의 확산에 의해 우리나라의 도시 및 자연환경은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1980년대까지 무질서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었다(임승빈, 2007). 다양한 문헌사료 중, 조선의 자연경관에 대한 서양인의 여행견문기록들은 우리 문화를 긍정적으로 예찬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토경관을 새롭게 조감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당시 서구인들의 정상적인 조선여행은 1880년경부터 한일합방 직전까지 2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서양인들의 조선방문 목적은 외교, 사업, 선교, 교육, 탐사, 단순한 여행이나 정치적 조사 그리고 러일전쟁의 보도를 위한 방문까지 목적과 체류 기간은 다양했다. 관련 연구 동향으로 한승역(2005)은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복식문화를 분석하였고, 신복룡(2004)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문화정체성에 재조명하였으며, 최재영(2007)은 서양인들의 기록에 나타난 조선 이미지에 관해 교육적 활용 방법을 모색하였고, 김재남(2004)은 지리적 자아의 장소감을 반영하고 있는 재현경관인 풍경화를 통해 서울의 근대성을 연구했다. 경관에 관한 연구는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선의 경관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형적인 특성상 산이 많고, 계곡, 하천, 강 등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한국에서의 다양한 여행체험을 바탕으로 서양인들이 직접 보고 묘사하며 서술한 조선에 대한 견문 텍스트를 통해 우리는 구한말 시대를 살았던 당시 조선의 경관을 되돌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한말 관찰자적 입장에서 본 당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자연경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당시 자연경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분석 방법

1.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집문당 출판사 발행 ‘한말의 외국인 기록 시리즈’를 근간으로 자연경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III. 구한말 경관 관련 문헌 고찰

1. 관련 문헌

분석대상인 것으로 한말의 외국인 기록 시리즈는 총 21권, 경관에 대해 기술한 문헌은 총 18권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현 지역

서울(22)은 저자들이 언급하는 지역 중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7), 한반도 전체(4), 제주도(3), 인천(2), 서해안(2), 충청도(1), 전라도(1), 부산(1), 남해안(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저자 신분

저자는 어느 한 직업이나 신분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 중 학자(5)와 여행가(3)가 많은 편이었으며 기자(1), 영사(1), 서기관(1), 의사(1), 외교관(1), 화가(1), 교수(1), 교사(1), 선무원(1), 문필가(1), 장교(1), 선교사(1)가 있었다.

3) 저자 출신국가

저자의 출신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차 순으로 영국(5), 캐나다(2), 독일(1), 네덜란드(1), 헝가리(1)가 있었다.

4) 문헌 형태

기본적으로 타지를 방문하고 그에 대해 기술했기에, 기행문(9)의 형태가 가장 많았고 수필(7), 일기(3), 보고서(1), 편지(1)의 형식도 나타났다.

2. 자연경관 기술 대상

서울지역에 대한 경관 유형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자연경관에 대해, 산봉우리, 남산, 북한산, 화강암, 한강, 성벽, 전나무, 산사나무, 단풍, 산등성이 등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뛰어난 자연 경관 그대로의 경관에 대해서 감탄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서울의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서울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나무 없고 험벗은 윤곽은 깎아지른 듯 가파르게 푸른 지평선을 그리고 있다. 언덕과 고갯길에는 작은 나무와 작은 숲이 있고 여기에 작은 부락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아주 멋진 좁은 길을 통해 마을로 들어가면, 길 가장자리에는 클레머티스, 들장미, 산사나무 또는 라일락 등의 무성한 관목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L.H.언더우드. 1904. p.59)”

그러나 당시 경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되어지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잘 정돈된 정원과 인위적으로 구획된 공원을 접하다 온 서양인들에게는 큰 매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황폐한 언덕, 울퉁불퉁한 바위산, 그리고 해안선 여기저기 우뚝한 곳에 몇 개의 어촌 오두막집이 군집해 있어, 마치 30피트의 쇠도하는 파도에 씻겨지는 해안의 드문드문한 외로움에 대항하여 서로 힘을 합쳐 보호하는 듯하다. 파도가 다 쓸어버리고 지나가면 그저 거대한 모래톱과 황량한 잡초들로 뒤덮인 바위들만 남는다. 해안에는 바위가 많고, 위험한 여울목과 방심할 수 없는 바위로 에워싸여 있다.(G.W.길모어.1892. p.20)”

표 1. 장소와 자연경관 키워드 출현 빈도

구분	키워드 출현 빈도
언급장소	
서울	풍경(7), 연못, 화강암(3), 사암, 등산길, 산기술, 급류, 화강암(2), 북한산(2), 세 개의 산꼭대기, 세 개의 암벽, 구름(8), 한강(2), 계곡(4), 골짜기(2), 언덕(5), 성벽(3), 바위(3), 산등성이(3), 야산(2), 능선(2), 급경사, 남산(3), 북한산, 관악산, 바위산(2), 깎아지른 듯 솟은 산, 민동산, 험벗은 윤곽, 험벗은 모습의 산, 숲(4), 삼림(3), 산(2), 산봉우리(5), 섬, 강, 성문, 구름길, 나룻길, 냇물, 물웅덩이, 좌청룡 우백호, 안산, 마포 시내의 넓고 깨끗한 큰 도로, 중국과 넓은 골목길, 침엽수, 소나무(2), 참나무(3), 전나무(2), 진달래(2), 단풍(5), 뱀나무(3), 낙엽송(2), 산사나무(2), 자작나무, 떡갈나무, 뽕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느릅나무, 보리수, 들장미, 라일락, 노란 백합, 붉은 봉선화, 국화, 접시꽃, 제비꽃, 제비꽃 깃, 칙령굴, 야생화, 인동덩굴, 산마루, 복숭아꽃, 암초, 여울목, 달빛 삼각산, 석회암층, 기와, 휴양지, 잔디밭, 화원, 서양 협죽도, 뽕나무 발반구형의 바위, 돛 형상, 평야, 개천, 협곡, 한강, 성곽, 포구, 분수령, 야생 숲, 일주형, 봉우리, 낙조, 초록의 물결, 보라색 제라늄, 화산암, 경사지
인천	월미도, 만조, 단풍, 화강암, 바위(2), 야산, 제물포, 해안 낮은 언덕, 개펄
경기도	경작지, 계곡, 소나무, 밤나무, 덩굴, 침엽수, 경목류
강원도	단풍나무, 참나무, 소나무, 급경사, 침엽수, 상록수, 일출, 일몰, 강(2), 파도, 육지, 산, 삼일포, 달(2), 섬(2), 죽서루, 바위, 냇물, 숲, 계곡, 나룻배, 설악산, 만년설
충청도(충주)	높은 울타리, 바위, 절벽
전라도(신안)	신안해협, 흰 꽃 울타리, 떡갈나무, 다도해
부산	버드나무, 진달래, 푸른 땅, 높은 언덕, 검푸른 소나무
제주도	바위, 산, 계곡

서해안	골짜기, 떡갈나무, 푸른 망망한 대해, 검은 섬, 하늘, 화강암, 현무암, 사원봉, 바위, 낙동강, 동부지방 산맥, 서부지방 경사지
남해안	다도해, 뾰족한 섬
한반도 전체	산맥(2), 황무지(2), 섬(2), 언덕(2), 암자, 정원, 연못, 백두산, 다도해, 화강암, 벌거숭이 산, 사암, 대리석, 산봉우리, 진달래, 철쭉, 제비꽃, 계곡, 산등성이, 좌청룡 우백호, 능선, 황폐한 남해안, 울창한 북부내륙, 계곡, 덩굴, 벌거벗은 언덕, 해안선

3. 자연경관에 대한 표현 양상

구한말 외국인인 바라본 서울의 경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서울의 모습이나 풍경 등에 대해 기술되어지는 모습을 추출하였다. 서울의 경관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는 아름답다, 매혹적이다, 대단하다, 절경이다, 인상적이다. 등의 순으로 언급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의 모습에 대해 감탄하며 묘사된 부분이 있다. “서울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풍경은 전체적으로 쾌적한 인상을 준다.” 또한 다음의 부분을 보면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국 마을의 작은 집들과 근처의 아름다운 마당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경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되어지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는 황폐하다, 황량하다, 매력 없다, 볼만한 것이 없다. 등의 순으로 언급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술된 내용을 보면 “만약 당신이 독특하고 진기한 것을 찾으려 한다면 도시는 당신에게 별다른 흥미를 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IV. 결론

서양인들의 기록에 나타난 서울의 자연경관에 대한 기록은 구한말 시대에 서양인들의 관찰과 평가는 현재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낀 기록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문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경관의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그들의 시각에서 지적하고 있음에 문화사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차적 자료를 주 분석대상으로 하여 원어를 대상으로 그 의미 차이를 분석 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가 구한말 당시 서울의 경관상을 읽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다양한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 [1] 한승익(2006) 조선문화에 대한 서양 작가들의 시각.
- [2] 최재영(2007) 개항기 외국인 기록에 나타난 조선이미지의 교육적 활용방안.
- [3] 신복룡(1999) 서울 풍물지.
- [4] 신복룡(1999) 상투의 나라.
- [5] 신복룡(2004) 서세동점기의 서구인과 한국인의 상호인식.
- [6] 이민영(2013)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자연경관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 [7] 임승빈(2007) 경관유형 분류지표에 관한 연구